

국가별 동향



아르헨티나

Granja Tres Arroyos 새 부화장 건설



Granja Tres Arroyos 사(社)는 새 부화장을 짓기로 했다. Granja Tres Arroyos 는 4,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금회사이다. 또한 높은 기술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생산량의 30%를 유럽, 중국, 아프리카 등 국외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 회사는 Entre Rios 지방에 새로운 부화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신축될 부화장은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적인 건축 기술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짓게 된다.

회사 대표인 Joaquin De Grazia 박사는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원하며 이 목표를 위해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접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The Poultry Site]



인도

닭고기 연합회 새 점포 개점

인도의 닭고기 연합회는 친환경 농장들과 계약을 통해 Faridabad, Gurgoan, New Delhi에 세 개의 매장을 개점하였다. 각 점포는 부분육,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냉동육 등 닭고기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

2008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도 북쪽에 30여 매장이 있었다. 또한, 전국의 슈퍼마켓에서도 제품이 진열되었다. Punjab에 있는 공장은 HACCP 및 ISO 인증을 받았고, 일일 11,000수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asian-agribiz]



영국

Gafoor 가금공장 개선

Gafoor 가금공장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Preston, Lancashire에 본사를 둔 Gafoor 가금공장은 2009년 10월부터 1년간 4천1백만 4천 파운드 판매실적을 기록하여 전 년 대비 13%가

상승하였지만 지난 1년 동안은 백만 파운드 손실을 입어 4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공장 성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그룹 관계자가 발표했다. [The Poultry Site]



필리핀

캐나다산 가금수입 금지

필리핀은 캐나다 Manitoba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했다.

필리핀 농림부 장관인 Proceso Alcala씨는 캐나다 식품안정청에서 가금육 생산 작업 과정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Manitoba외에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대만, 부탄 등으로부터 가금류 수입을 일시 금지하였다. [asian-agribiz]



뉴질랜드

계란 생산자들 특별 부담금 동의

지난해 3백만 마리로부터 9억 7천2백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였던 계란생산연합회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계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기금을 내기로 했다.

뉴질랜드 뉴스에 따르면 특별 부담금 적립이 백만 달러(NZ) 이상이 되면 동물복지, 식품안전,

사양기술교육, 계란산업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The Poultry Site]



파키스탄

편자브 5개 농장 경매 처분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북부에 걸친 편자브 주(州)는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세워진 9개 가금농장 중 지난 25년 동안 막대한 손실과 불필요한 지출로 6개 농장을 처분하기로 했다.

5개 농장은 경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개의 농장은 철거하기로 했다. 편자브 주 관계자는 9개 농장에 수천만 루피가 투자되었지만 손익분기점 도달에 실패하였다고 말했다. [asian-agribiz]



태국

2011년 육계 생산량 소폭 상승 예상

태국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육계 생산량이 1.7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국 육계 소비는 전체 생산량의 67.97%인 881,270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육계 수출량은 4.91% 상승한 438,000톤(17억 8천 달러)을 예상했다. [asian-agribiz] 양계